

지속가능한 설탕소비를 위한 소비자들의 인식 변화



뉴욕지사



작성자_ 박주성



수십 년 동안 소비자들은 먹고 마시는 설탕의 양을 줄이는데 관심을 가져왔다.

시장 조사 기관인 케리(Kerry)의 새로운 소비자 연구에 따르면 소비자들이 최근 설탕 섭취를 줄이려고 하는 주된 이유가 단순한 체중 감량 목적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Kerry의 연구에 따르면 소비자들은 설탕 섭취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는 주된 이유로 장기적인 건강을 꼽았다. 응답자 10명 중 7명은 더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 설탕 소비를 줄이고 있다고 답했으며, 10명 중 6명은 미래의 의료 문제를 피하고 싶다고 답하였다.

Kerry사의 연구 이사인 수미아 나이어(Soumya Nair)는 소비자의 삶에서 설탕 감소가 지배적인 경향이라는 것은, 설탕 소비 감소가 더 이상 일부 소비자들의 니치한 요구 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언급하였다. 그는 설탕 감소가 이미 모든 사람의 삶의 일부가 되었다고 평가하였다.

설탕 섭취를 줄이기 위한 이유



더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



미래의 의료 문제를
피하기 위해

천연 감미료의 관심 증대

Kerry의 조사에 따르면 전 세계 소비자들은 천연 감미료에 가장 많은 관심을 나타냈다. 미국에서 10명 중 거의 7명에 달하는 소비자가 천연 감미료를 선호한다고 답하였고, 약 54%의 소비자가 가장 선호하는 천연 감미료로 꿀을 선택하였다.

Nair이사는 소비자들의 꿀 선호가 맛 뿐 아니라 꿀이 가지는 건강 후광 효과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하였다. 그러나 소비자들에게 청량음료, 구운 제품, 또는 아이스크림에 사용되는 감미료로서 꿀에 대한 선호를 물었을 때는 오히려 선호도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미국 소비자들의 거의 반 이상은 설탕을 선호하였고, 10명 중 3명의 경우는 메이플 시럽을 최고의 감미료라고 말하였으며 4명 중 1명은 스테비아에 관심을 보였다.



* 출처: Luis Ascui/Stringer via Getty Images (게티이미지)



* 출처: Sean Gallup via Getty Images (게티이미지)

건강 증진 음식에 대한 소비자의 욕구 증가

Nair이사는 현재까지 소비자들이 설탕 감소 측면에서 원하는 것과 그들이 선택하는 제품 사이에는 격차가 존재하나, 이 격차는 줄어들고 있다고 전했다.

Kerry는 앞으로 장기적인 건강을 증진하는 음식을 소비하려는 소비자들의 욕구가 더 커질 것으로 예상하였다. Kerry의 조사에 따르면 당뇨병, 고혈압, 심장마비 위험증가를 포함하여 설탕 소비가 가져올 수 있는 건강 위험을 다양한 세대가 동일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또한 환경 및 인권 측면에서 지속가능성이 중요해짐에 따라 설탕이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최근에 언론에서는 사탕수수밭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인권 유린에 대해 보도하였다. 소비자의 3분의 2가 더 지속할 수 있는 음식과 음료를 선택하려고 하며, Nair이사는 제조업체들은 이러한 지속가능성 이슈에 대해서도 소비자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건강과 환경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증대되는 것과 설탕을 감소하고자 하는 소비자 니즈가 맞물려 있으므로, 설탕 감소에 대한 직접적인 메시지뿐만 아니라 지속가능성과 그 출처 등 보다 포괄적인 메시지를 소비자들에게 전달할 수 있다.

Insight

설탕 섭취 감소 트렌드는 다양한 이슈를 일으키고 있다. 소비자들은 건강한 음식을 원하고 있으며 이러한 트렌드는 앞으로도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동시에 감미료가 건강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하여 다양한 주장들도 제기되며 논란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식품 제조업체들은 소비자들의 설탕 감소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전략 구상에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